5경기 16골 1실점…'전국 최강' 광양여고 축구 우승

여왕기 대회 압도적 경기력
지난해 이어 대회 2연패
광영중은 아쉬운 준우승

광양여고(왼쪽)와 광영중학교 여자 축구부가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각각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후 자축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체 5경기 16골, 1실점.'

여자고등부 최강팀 광양여자고등학교가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압도적 경기력으로 우승을 일궈냈다.

28일 전남축구협회(회장 신정식)에 따르면 광양여고는 최근 경남 합천군에서 열린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는 지난해 대회에 이어 잇따라 왕좌를 차지, 여고부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광양여고는 지난 4월 춘계연맹전 우승팀인 포항여전고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준결승전에서 준결승에서 경남 로봇고를 4-0로 꺾고 결승에 오른 광양여고는 결승에서 포항여전고 이선빈(포항여전고)에 선제골을 내줬다.

행운의 여신은 후반 광양여고에 미소를 보였다.

광양여고는 후반 4분께 조혜영(2년)이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올린 크로스가 포항여전고의 자책골로 이어져 1-1,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상승세를 탄 광양여고는 후반 38분 조혜영이 다시한번 크로스를 올렸고, 포항여전고 키퍼를 맞고 떨어진 공을 정다빈(3년)이 오른발 인사이드로 갈무리해 2-1로 전세를 뒤집었다.

광양여고는 이후 혼신의 투혼으로 골문을 지켜 승부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춘계연맹전에서 포항여전고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한 광양여고는 춘계연맹전 패배를 설욕하며,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광양여고는 이번 대회 각종 상도 쓸어담았다.

박인영(3년) 최우수선수상을, 조혜영(2년)이 득점상,조어진(3년)이 GK상을 수상했다. 권영인 감독과 이슬기 코치는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코치상을 받았다.

권영인 감독이 2015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광양여고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국대회에서 10여차례 정상에 올랐다.

여자축구 국가대표들을 다수 배출했다. 정다빈·황다영(이상 FW)·조어진(GK)·진혜린(DF)·조혜영·고다예(이상 MF) 등 국가대표 상비군 6명도 보유하고 있다.

권영인 감독은 "선수들이 기술적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앞두고 체력을 보강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면서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말했다.

광영중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영중은 조별예선에서 조2위로 8강에 진출, 8강에서 강팀 현대청운중을 접전 끝에 승부차기(5-3)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조별예선에서 0-1로 패했던 노원유나이티드를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충북예성여중을 만나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나 0-6로 패했다.

광영중학교는 김서윤(3년)이 우수선수상을, 황다빈(3년) 득점상 ,박서인(3년) 수비상, 박태원 감독과 조주빈 코치가 각각 우수감독, 우수코치상을 수상했다.

박태원 광영중 감독은 "우승하지 못해 아쉽지만 선수들이 꾸준히 노력하여 나날이 발전된 실력을 보여줘서 고맙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꼭 우승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탁구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 성황리 마무리

동호인 900여명 참가

광주시탁구협회는 최근 화순 하니움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광주시탁구협회장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광주와 전남·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탁구 동호인 9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최근 남아공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지희과 신유빈이 36년 만에 중국을 꺾고 준우승을 거두고, 오는 2024년 부산에서 세계선수권 탁구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기도 했다.

박석인 광주시탁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한국 탁구계의 잇따른 경사를 발판삼아 탁구 저변이 확대되고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발혔다.

박 회장은 내빈으로 참석한 이형석, 김경만 국회의원 등에게 광주에서 2024년 대통령기와 대한체육회장기 대회 등 전국대회 유치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타그로스포츠와 협약을 통해 송정초등학교와 빛고을스포츠클럽에 탁구대와 유니폼 등 탁구용품 증정식도 열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날개 꺾인 '수영 영웅' 드레슬

미국 대표선발전 충격의 29위…세계선수권 출전 사실상 불발

케일럽 드레슬이 28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2023 미국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예선에서 29위에 그치며 세계선수권 출전이 사실상 불발됐다. 도쿄올림픽 남자 50m 자유형에서 출발하는 드레슬의 모습. /연합뉴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의 후계자로 불리던 케일럽 드레슬(26·미국)이 미국 수영 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100m 예선에서 29위에 그쳤다.

AP통신은 28일(한국시간) 드레슬의 충격적인 예선 결과를 보도하며 "이 종목을 지배하던 모습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논평했다.

드레슬은 이날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2023 미국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9초42로 이 경기에 출전한 63명 중 29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는 7월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막하는 2023 세계수영선수권 미국 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드레슬은 '중위권 순위 결정전'인 C 파이널에서 한 차례 더 경기를 펼치지만, AP통신은 "드레슬은 자유형 100m 대표 선발전에서 사실상 탈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드레슬은 2017년 부다페스트,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7관왕, 6관왕에 오르며 두 대회 연속 남자부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세계적 스타다. 2021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도 5개의 금메달(자유형 50m·100m, 접영 100m, 계영 400m, 혼계영 400m)을 목에 걸었다.

드레슬은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접영 50m와 계영 400m에서 총 2개의 금메달을 따고 잔여 경기에는 기권했다.

한동안 세계선수권 기권 이유를 밝히지 않던 드레슬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A)에 "심각한 압박감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고 밝히며 "수영장이 그립긴 하지만, 솔직히 수영을 떠나 행복감을 느꼈다. 휴식이 필요할 때는 꼭 휴식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썼다. /연합뉴스

바르심 스웨덴 다이아몬드리그 불참…우상혁·탬베리 2파전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르심(32·카타르)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육상 다이아몬드리그에 불참한다.

이번 대회 남자 높이뛰기는 우상혁(27·용인시청)과 장마르코 탬베리(31·이탈리아)의 2파전 구도로 변했다.

바르심은 28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세균성감염증에 걸렸다. 최소 열흘간 항생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며 "아쉽게도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출전 선수들의 행운을 빈다"라고 썼다.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 홈페이지에 게재한 출전자 명단에도 바르심의 이름은 빠졌다.

2023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는 한국시간으로 7월 3일 오전 0시 25분에 시작한다.

애초 이번 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집계하는 남자 높이뛰기 월드 랭킹 포인트 1~3위가 모두 출전하는 대회로 주목받았다.

현재 1위는 우상혁(1376점), 2위는 바르심(1365점), 3위는 탬베리(1361점)다.

스톡홀름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는 바르심의 대체자를 찾지 않고, 출전 선수를 9명에서 8명으로 줄여 진행할 전망이다.

우상혁과 탬베리 외에 지난해 세계선수권 3위 안드리 프로첸코(우크라이나), 브랜던 스타크(호주), 해미시 커(뉴질랜드), 두위 아멜스(네덜란드), 파비안 델리드, 멜윈 릭케-홀름(이상 스웨덴)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이력과 최근 기록을 보면 이번 대회는 우상혁과 탬베리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조훈현 통산 161번째 우승
영자배바둑 다케미야 꺾어

'바둑 황제' 조훈현 9단이 통산 161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조훈현은 28일 중국 윈난성 바오산에서 열린 2023 영자배 바둑대사대회 결승에서 일본의 다케미야 마사키 9단에게 286수 만에 흑 3집 반 승을 거뒀다. 조훈현은 이번 우승으로 한중일 최다 우승 기록을 161회로 늘렸다.

이번 대회는 초청받은 한중일 기사 3명이 역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다케미야가 1회전에서 중국의 왕루난 8단을 제압해 결승에 선착했고, 조훈현은 2회전에서 왕루난에게 85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우승 상금은 10만위안(약 1800만원), 준우승 상금은 7만5000위안(1350만원)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엘리멘탈
2관	귀공자
3관	여름날 우리, 라방, 애스터로이드 시티
4관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라방
5관	범죄도시3, 애스터로이드 시티
6관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파이어하트
9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애스터로이드 시티
7관 씨네커플	귀공자
8관 씨네커플	범죄도시3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